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코스피 기간조정국면 전환

전기차 배터리 부품·소재기업 관심을

미·중 무역분쟁이 분쟁과 협상 중 협상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제품에 10% 추가 관세부과 목록을 공개하면서 무역분쟁을 격화시켰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가 답화문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보복관세 보다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추가 고소하고 왕치산 부주석이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부과 직후 베이징에서 랍 이매뉴얼 사카고시장을 만나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간 협상기대감이 커져 글로벌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67% 반등하며 2310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2.35% 상승하며 827포인트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 6월 11일에서 지난 6일까지의 코스피지수 -7.3%, 코스닥지수 -7.9% 등 하락폭을 고려한다면 반등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주 언급했듯이 미·중 무역분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물을 원하고 있고 중국 시진핑주석도 오는 12월 중국개방 40주년 이전 일정수준의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면은 분쟁이 심화된 후 타협의 과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코스피지수의 밸류에이션도 PBR 1.0배 이하에서 유가 및 환율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전환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가격조정에서 기간조정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분쟁 완화로 코스피지수가 반등한다면 무역분쟁이슈가 부각되며 하락폭이 컸던 낙폭과대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가운데 2분기 실적이 양호한 기계·건설·증권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 지수상승은 예상되는데 매수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최근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형ETF도 좋은 매수대상이다. 또 지수 반등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하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생각한다면 코스피200지수대비 2배의 등락을 보이는 코스피200레버리지ETF에 대한 관심도 좋아 보인다.

무역분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추세적인 업황 호전 속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으로 필자가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전기차 업종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를 운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본은 2050년까지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판매를 모두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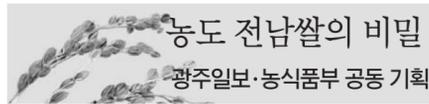
또 영국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비중을 최소 50% 이상에서 70%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2017년 기준 신차 판매비중의 1.3%에 불과한 전형적인 성장 초기시장이다.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추적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술력이 앞선 국내 배터리업체들에게는 오랜 기간 수요에 대한 부담 없이 시장이 성장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상승으로 가격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배터리관련 부품·소재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농업인·산·학·관 힘 합쳐 '쌀 한류' 이끈다



농도 전남쌀의 비밀 <광주일보·농식품부 공동 기획>

<중>해외서도 인정받는 명품 전남쌀

전남 쌀이 해외에서 잇따른 실적을 보이며 수출 농업에 일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쌀 수출 강국 사이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미주, 동남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며 선전을 펼치고 있다.

◇농업인과 산·학·관이 힘을 합쳐 해외시장 개척 = 전남군은 나라별 현지 소비층 기호에 맞춰 기능성을 한층 강화한 품종을 수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친환경 가바쌀은 지난 4월 13t을 수출한 이후 현지 소비자의 수요가 많아 당초 8월로 잡혀 있던 일정보다 빠른 5월에 추가 선적해 총 28t을 수출했다.

친환경 가바쌀은 전남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도를 받아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눈이 큰 가바쌀' 품종으로, 쌀눈의 크기가 일반 쌀보다 4.3배 크고 혈당조절에 좋은 가바(감마아미노낙산) 성분이 일반현미에 비해 16배 높다. 가격 역시 1.5배가량 높은 가격에 수출돼 미국 내 16개 마켓에서 판매되며 고급 쌀 소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현지 교민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레스토랑 등에도 친환경 가바쌀을 납품, 소비자층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해남군은 친환경 가바쌀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하이아미쌀로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추진하는 등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추가 공략할 예정이다. 하이아미쌀은 일반쌀보다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30% 높고, 특히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라이신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품종이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러시아에 수출하며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지에 40t의 쌀을 수출했고, 지난해부터 지역 프리미엄 농특산물 브랜드 '365생(生)'을 달고 수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러시아 사할린으로 18t을 선적한지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 18t을 추가 수출, 현지에서 일본산이나 중국산 쌀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혈당조절 좋은 해남 가바쌀 28t 수출

밥맛·찰기 뛰어난 장성 '조명1호' 미·러 인기 '대숲맑은담양쌀' 무안 '황토랑쌀'도 잘 나가

특히 러시아에서 호평 받고 있는 신품종인 '조명1호'는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육성한 품종이다. 밥맛과 찰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쌀시장과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곡성군은 유기농 발아현미·미숫가루 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해외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식량작물 수출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 쌀 가공품 1.5t을 미국에 수출했고, 중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장하고 있다. 쌀가공식품

업체인 미실란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과 공동으로 시범단지 내에 품종비교 시험포를 운영하며 지역적응 여부 시험을 통해 쌀가루 전용 품종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남 쌀의 적극적 해외 진출은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지자체와 농업인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공동으로 장성, 해남, 곡성 등 도내 3개소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를 조성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며 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쌀 판매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정받은 명품쌀, 해외에서도 잘나가 = 담양군의 '대숲맑은담양쌀'은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뉴저지주 수출 5t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0t을 수출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숲맑은담양쌀'은 이미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브랜드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었고, 2014년과 2016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대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전국 1위인 대상에 오르는 등 품질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인받았다.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대숲맑은담양쌀'은 10kg 기준 일반 쌀이 2만원 대에 판매되는데 비해 25% 이상 높은 2만5000원 대에 거래돼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무안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지난해 4월 황토랑쌀 8t을 몽골에 수출했다. 11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며 이미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황토랑쌀은 몽골 현지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일반 쌀로는 농업 선진국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차별화된 고품질 쌀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쌀 소비는 감소 추세이지만 해외시장에서 한국 쌀은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어 쌀을 통해 또 하나의 한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결혼 이민여성 농업인 1대1 맞춤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5일 결혼이민여성(멘티)과 여성농업후견인(멘토), 농협담당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이민여성 농업인 1대1 맞춤 농업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농촌 결혼이민여성에게 전문여성농민(후견인)을 연결시켜주는 맞춤형 농업교육으로, 농림축산식품

부와 농협이 협력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이해와 멘토-멘티의 관계형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기법 등으로 진행됐다. 박태선 본부장은 "다문화여성 이 안정적으로 농촌사회에 정착해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농촌마을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농업인·도시민 상생 도모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15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시민들에게 농촌마을을 알

려 국내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촌에서의 휴가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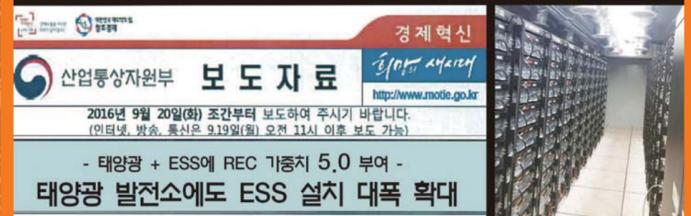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회선>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